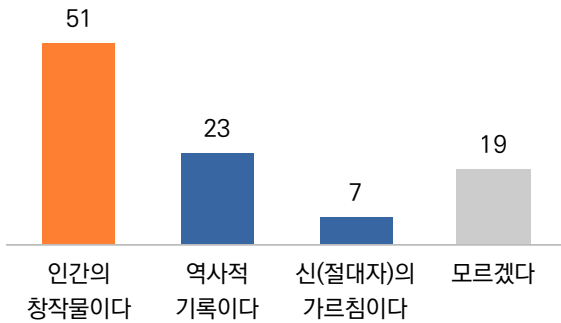




무종교인 절반, '종교 경전은 인간의 창작물!'

- ▶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'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 조사' 결과(한국리서치)가 발표됐는데, 이 중에서 '무종교인'들의 인식만을 뽑아 분석해 보았다. 성경, 불경 같은 종교 경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'무종교인'의 절반(51%)이 종교 경전은 '인간의 창작물'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, 이어 '역사적 기록이다' 23%, '모르겠다' 19% 등의 순이었다. '신의 가르침이다'라는 의견은 소수(7%)에 그쳤다.

[그림] 종교 경전에 대한 정의 (무종교인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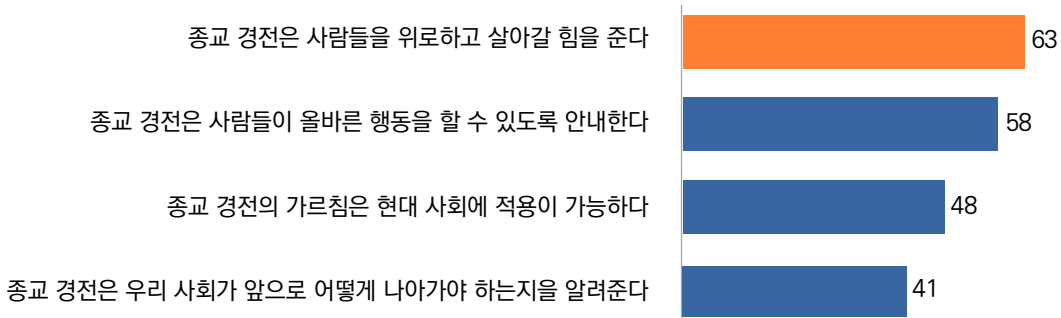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'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조사', 2024.01.23. (전국 만 18세 이상 무종교인 499명, 웹조사, 2023.11.24.~11.27.)

◎ 무종교인 3명 중 2명, 종교 경전의 '위로와 힘' 인정

- ▶ 종교 경전에 대한 몇가지 문장을 제시하고,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, '종교 경전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주며(63%)', '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된다(58%)'는 데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. 다만 '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'으로써 역할에는 41%만 그렇다고 응답했다. 전반적으로 무종교인도 종교 경전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.

[그림] 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 (무종교인, '매우+어느 정도' 그렇다 비율**, 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'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조사', 2024.01.23. (전국 만 18세 이상 무종교인 499명, 웹조사, 2023.11.24.~11.27.)

**5점 척도